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3년 10월 29일(화) 조간
담당자	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(02-958-4076, dkang@kdi.re.kr) 김정인 KDI 금융경제연구부 전문위원 (02-958-4089, kjicoke@kdi.re.kr)
배포일시	2013년 10월 25일(금) 10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2-958-4030, press@mosf.go.kr)

KDI,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

- 일 시: 2013년 10월 25일 17:00~18:00
- 장 소: 웰리힐리파크(강원도 횡성군 소재)
- 주 최: 여신금융협회

□ KDI는 10월 25일(금)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‘VAN시장 구조 개선방안’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VAN 시장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그 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

○ KDI는 각계의 입장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핵심 현안인 VAN 시장과 관련해,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로 VAN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, 합리적인 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.

◆ 첨부 발표 요약

❖ 첨부 발표 요약

신용거래 선진화를 위한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

강 동 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

1. VAN수수료 체계 개편 배경

- 2012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이후,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VAN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관한 논의 진행
 -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평균결제금액은 낮아지면서 수수료에서 VAN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
 - 고비용 지급결제수단의 과용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의 장애요인이며 나아가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.
- VAN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근절은 VAN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지목
 - VAN시장 리베이트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는 대형가맹점과 VAN사 간 리베이트에 관한 조사 실시
- VAN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신용거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KDI는 VAN시장 구조 개선 연구를 진행

2. 현행 VAN수수료 체계의 문제점

- 현재 VAN수수료는 VAN사와 카드사 간에 결정, VAN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거래구조를 야기
 - 리베이트 경쟁은 불공정한 비용분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수익의 불법적 또는 불합리한 내부적 배분을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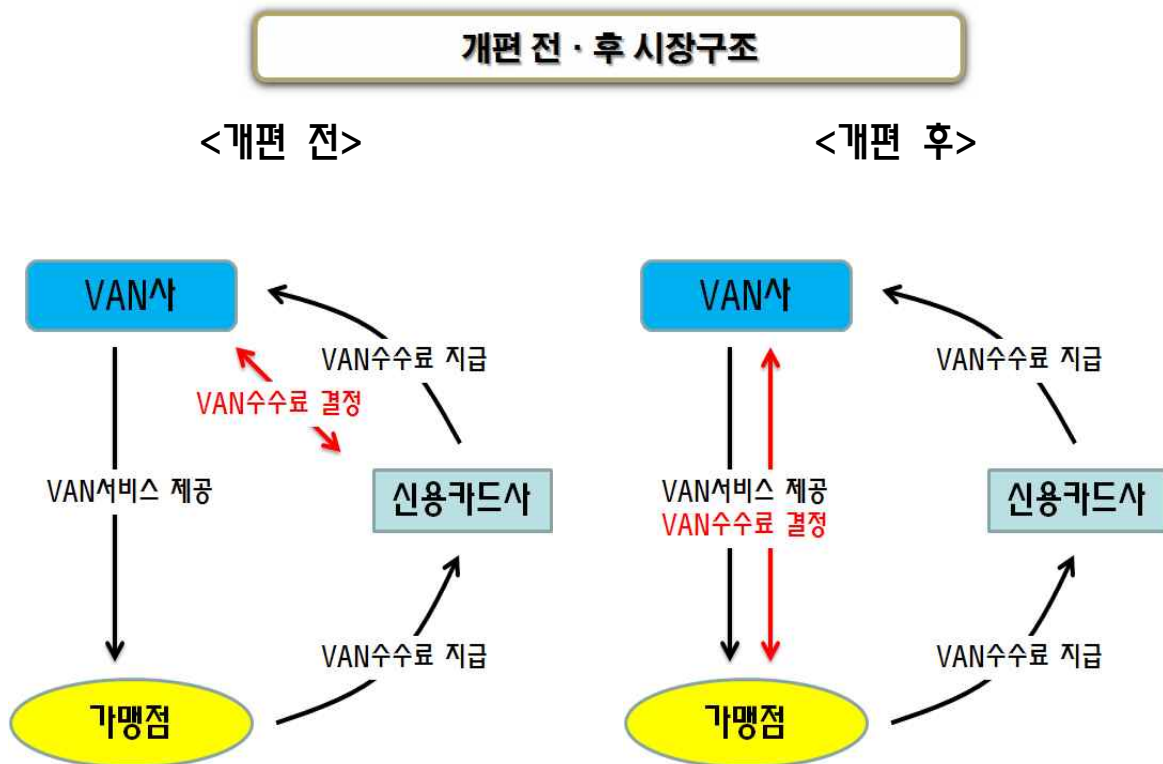
3. VAN시장 구조와 리베이트

- 리베이트의 순기능: 유효한 가격경쟁수단
 - VAN수수료가 VAN사와 카드사 간에 결정·지급되는 현 거래구조 하에서는 가맹점 유치를 위한 VAN사 간의 가격경쟁수단이 부재
 - 이러한 상황에서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, 실질가격과 비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함.
- 리베이트의 역기능: 공정성 훼손
 - 대형가맹점 유치는 VAN사가 카드사와의 수수료협상 시 유리하게 작용
 - 따라서 VAN사는 대형가맹점에게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
 - 그 결과 소형가맹점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, 이 중 일부분은 대형가맹점으로 귀속되는 사실상의 교차보조(cross-subsidy)가 발생함.

4. VAN시장 구조개선 방안

□ VAN시장 구조 개선의 기본방향

- VAN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VAN서비스 제공·수혜 주체와 가격결정·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현 시장구조에 있음.
- 따라서 거래당사자 인 VAN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거래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함.
 - VAN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VAN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한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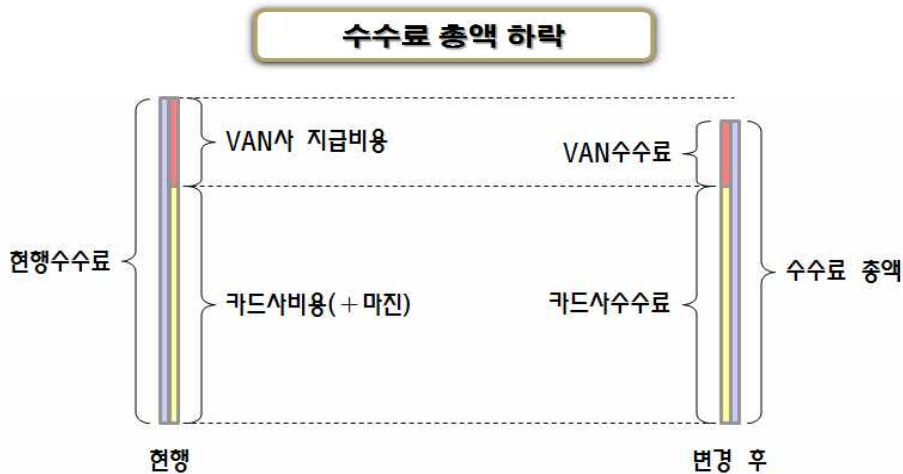
□ VAN시장 구조 개선의 기대효과

○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

-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① 교차보조 가능성 해소, ② 부당한 내부수익문제 해결, ③ 불법적 수익 착복 가능성 제거, ④ 수익자 부담원칙 확립 등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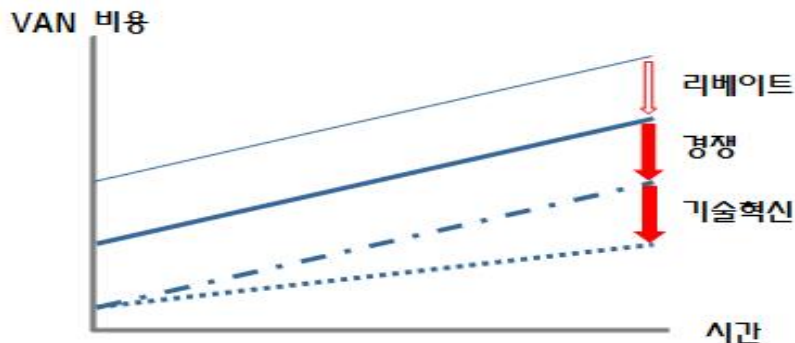
○ 거래의 비용 절감

- ① 리베이트 소멸, ② VAN사 간 압력, ③ 기술혁신 도입 촉진 등으로 VAN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



VAN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기대효과

- 리베이트 소멸
- Level effect: 경쟁
- Slope effect: 기술혁신



5. 가맹점 유형별 영향

- 현재 VAN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며, 리베이트 소멸 시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¹⁾
 - 현행 VAN수수료 중 약 30원은 가맹점 지급수수료이며, 신 체계 이행 시 소멸
 - 대리점 지급수수료가 약 39원인데 이 중 일부도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신 체계에서 VAN수수료 인하폭은 30원을 상회

- 신 체계 이행 시,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합계 또한 하락할 전망
 - 평균적으로 현재 VAN수수료 113원만큼 카드사수수료가 하락할 것이며, 신 VAN수수료가 83원 이하므로 수수료 합계는 30원 이상 하락

- 대부분의 영세가맹점 수수료 합계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, 평균결제금액이 약 5,500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 합계는 상승할 가능성 있음.
 - 평균결제금액이 약 5,500원 이하인 가맹점의 카드사수수료는 0%로 인하되는 반면 신 VAN수수료는 1.5% 인상 될 가능성 있음.
 - 이러한 가맹점은 전체 영세가맹점의 약 0.6% 정도인 11,000개로 추산

- 평균결제금액이 약 3,100원 이하인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 합계는 하락
 - 전체 소액다건 가맹점 중 0.3% 정도인 184개 가맹점은 평균결제금액이 약 3,100원 이하로, 수수료 합계가 2.7% 이상이 될 가능성

1) 현재 거의 무료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단말기가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음.

6. 수수료 인상 억제방안

-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됨.
 - [1안] 기본방안을 적용하되,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는 가맹점에 한해 VAN수수료 상한을 각각 1.5%, 2.7%로 설정
 - [2안] 일반가맹점에만 기본방안을 적용하고,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는 기존처럼 1.5%, 2.7%의 가맹점수수료를 적용
- 1안을 따를 경우, VAN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(가칭)나눔VAN서비스로부터 VAN사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
 - 약 11,000개의 영세가맹점에 1.5%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VAN사의 수익 감소
 - 약 184개의 소액다건 가맹점 2.7%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VAN사의 수익 감소
 - 단, 이들 가맹점의 분포와 거래형태를 고려할 때, 수익감소 규모는 각각 10억 원 이내로 추정
- (가칭)나눔VAN서비스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모든 VAN사는 참여 가능하며, 참여하는 VAN사에 손실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
 - 모든 VAN사가 나눔VAN서비스를 기피할 가능성에 대비, 나눔VAN서비스 의무사업자를 하나 이상 지정

- 나눔VAN서비스 제공하면 VAN사의 수익은 감소하나, 마진을 제외한 비용만 고려하면 나눔VAN서비스 자체 손실은 총 10억 원 이내로 추정
- 대리점 지급수수료 중 리베이트의 비중 및 가맹점 당 고정비용에 관한 가정에 따라 지원금액(손실액)이 상승할 가능성
 - 하지만 나눔VAN서비스에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금액은 기존 신용카드사 부담분 이내이므로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전망
- 2안을 따를 경우,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 전체에 신 체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과 원하는 가맹점만 면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.
 - 해당 가맹점군 전체에 신 체계 적용을 면제하면 실행이 단순한 반면 이 가맹점들은 신 체계 도입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함.
 - 원하는 가맹점만 면제하면 실행이 복잡해 추가 비용 소요될 수 있음.

7. 기타 보완 대책

- 매입 방식, 매입 청구데이터 확정 의뢰 여부, 전표 수거 의뢰 여부에 따른 VAN수수료 차등화를 통해 가맹점의 효율적 선택을 유도
 - 가맹점의 효율적인 매입 서비스 조합 선택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별로 수수료를 책정할 필요 있음
 - 묶음판매를 허용하되 서비스별 수수료를 제시하도록 규제

- 단말기 구입 여부, 대여 단말기 사용 여부에 따라 VAN수수료를 차등 적용, 가맹점이 비용 대비 혜택이 가장 큰 단말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함.
- 단말기 표준화를 통해 가맹점이 다른 VAN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함.
 - 가맹점의 전환비용을 낮춰, VAN사 간 경쟁을 유도함.
- 정책당국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VAN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VAN사 간 담합을 억제하고 조기 적발해야 함.
 - VAN수수료 공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들에 결제양상에 따른 표준 VAN수수료 정보를 제공함.
 -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로부터 각 가맹점의 결제양상과 VAN수수료 정보를 받아 분포를 공시
 - VAN사 간 담합이 의심될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조사·적발·규제하고, 미연에 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공조